



웹진



유튜브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연금정보
간편조회
서비스



알림톡

알림톡을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소식을 빠르게 접할 수 있습니다



본사(나주)

(58326)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45 (빛가람동)
061) 338-0000

서울센터

(073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7층
(여의도동, 전경련회관)
02) 769-4401~4404

대전센터

(35209)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809 사학연금회관
14층 (둔산동)
042) 538-2371~2375

부산센터

(4735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일로 181
사학연금회관, 7층 (범천동)
051) 637-6015~6018

연금dream 콜센터 전국 어디서나 1588-4110(유료)

※ 상담시간 09:00~18:00

2022

11



Homage Story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모험은 꿈꿔오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영화감독 스티븐 스피버그는, 영화를 통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어디든 갈 수 있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그가 꿈꿔던 삶을 살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닐까요?
꿈꿔던 영화 인생을 살아가는 사학가족 역시, 언제나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운명처럼 영화계에 입문하게 되었는데,
당시 지도 교수님도 말리셨을 정도로
불확실한 미래에 도전한 셈이었죠.
가난한 조감독 생활보다도
내 작품을 만들지 못한 아쉬움이
감독 데뷔를 당겨주었습니다.
꿈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p.10



모악산의 아침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싶어요.
지속 가능한 축제,
프로그램, 결혼식 등을 열어보고 싶고,
지향하는 가치가 비슷한 곳에 제공하는,
공간 기부도 꾸준히 하고 싶어요.
모악산의 아침을 방문하셨던 분들이
다시 오셔서 추억을 곱씹을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오래오래 운영하겠습니다!
p.21



한순간의 빛나는 추억만 있어도 살아갈 수 있다.
아득하게 피어오르는 기억에
마음이 몽글몽글해질 땐,
이효석이 '숨이 막힐 지경'이라고 칭송했던
달빛 아래 메밀밭에 기대보자.
이효석문화예술촌에선 메밀밭이 어디에 있는지
길을 물을 필요도 없다.
눈을 돌리는 곳이 다 메밀밭이기 때문이다.
젊은 소설가와 늙은 장돌뱅이가 사는 내내 그리워했던
메밀꽃은 매년 새로 피어난다.
p.27



Contents

2022년 11월
432호



사학, 미담美談

- 04 **명사로부터**
할아버지가 된 피터팬
스티븐 스피버그(Steven Spielberg)
- 06 **친애하는 당신에게**
호남대학교 퇴임
안태근 교수님
- 12 **사학 백일장**
사학가족의 수필과 시 소개

발행인 주명현
발행일 2022년 11월 1일(비매품)
발행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문의 061)338-0363
주소 (58326) 전남 나주시 문화로 245(빛가람동)
대표전화 061)338-0000
등록번호 나주라 00010
등록일자 2006년 1월 12일
기획·디자인 경성문화사 02)786-2999
연금업무 상담 1588-4110(유료)
표지 일러스트 제니곽

세상, 만담漫談

- 16 **도전 백주부**
바다의 우유가
우리집 밥상에!
굴전
- 18 **지구#**
모악산의 아침
- 22 **알쓸신JOB**
보건·의료 관련 직업
- 24 **문학기행**
달빛 아래 피운 사랑
숨이 막힐 지경이구나
- 이효석 문학관
- 28 **쉬운 경제**
부동산 거래량과 가격 추이
서울 아파트 매매 월 650여 건
금리인상은 언제 멈출까
- 30 **건강 전도사**
이유 모를 피로가 계속된다면?
갑상선기능저하증을 의심해 봐야

함께, 정담情談

- 32 **연금 정보**
2022년 연금소득세
연말정산 안내
- 34 **독자 마당**
- 35 **제휴 복지**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할아버지가 된 피터팬

스티븐 스피버그



Steven Spielberg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거장 스티븐 스피버그 감독의 영화는 환상과 모험으로 가득 차 있다.
 열세 살에 첫 영화를 찍은 이래, 큰 코에 호기심 가득한 눈을 가진 털보 할아버지는
 여전히 '영화에 열광하는 덩치 큰 소년'처럼 살고 있다.
 판타지와 현실의 경계에서 스피버그는 말한다.
 영화를 통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어디든 갈 수 있어 행복하다고.

글. 윤진아 일러스트. 이대열

스피버그는 종종 자신이 '지구에 몰래 들어와 살게 된 선량한 외계인'일 거라는 생각을 한다. 커다란 눈에 땅딸막한 몸, 길고 가느다란 손가락, 총 대신 식물표본을 든 외계인 E.T는 그의 분신 같은 존재다. 1982년 개봉한 <E.T>는 난쟁이 외계인과 소년 엘리엇의 순수한 우정을 다룬 영화다. 엘리엇과 E.T가 손가락을 맞대는 장면, 함께 자전거를 타고 달을 배경으로 날아오르는 장면은 영화사에 길이 남을 명장면으로 남아있다.

E.T나 영화 <에이아이(A.I)> 속 어린이 로봇은 스피버그의 자전적 스토리에 가깝다. 어린 시절의 스피버그는 스스로를 '지구에 불시착한 외계인'으로 여겼다. 부모의 이혼으로 여러 번 이사를 다녀야 했고, 친구들은 큰 코에 고수머리 등 유대인의 특징을 지닌 스피버그를 따돌렸다. 영화는 소년이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다. 친구들이 책을 읽거나 운동할 때 스피버그는 8mm 카메라 앵글을 통해 세상을 바라봤다. 11세 땀 단편영화를 만들어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55달러를 벌었고, 16세 땀 140분짜리 SF 영화를 극장에 걸었다.

영화 사상 최초로 1억 달러 이상을 번 <쥬스>를 비롯해 <E.T>, <인디애나 존스> 등으로 매번 자신이 세운 흥행 기록을 스스로 깨뜨려온 스피버그는 1993년에도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기상천외한 공상을 펼쳐보였다. 화석 속에 보존된 공룡의 DNA로 탄생시킨 <쥬라기 공원>에 전 세계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까지 열광했다. <선들러 리스트>, <라이언 일병 구하기>는 대중성은 물론 작품성까지 겸비한 거장임을 입증한 작품이다.

이제 관객들은 그의 이름만 듣고도 영화를 보러 간다. 지난해 개봉한 스피버그의 첫 번째 뮤지컬 영화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는 개봉과 동시에 북미 주말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하며 새로운 신드롬의 시작을 알렸다. 최근 스피버그가 각본과 연출을 맡은 영화 <더 파벨만스>는 지난달 18일(현지시간) 토론토 국제영화제 최고상을 받으며 내년 아카데미 작품상 수상을 일찌감치 예고하기도 했다. 어느덧 76세의 할아버지가 됐지만, 스피버그는 '꿈의 공장' 할리우드에서 또 다른 모험의 여정을 떠나려 하고 있다. 상상은 결코 늙지 않으며, 나이가 들었다 해도 피터팬은 영원한 피터팬이기 때문이다. [tvN](#)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모험은
 꿈꿔오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친애하는 당신에게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영화계의 거장 스티븐 스피버그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모험은 꿈꿔오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말을 했다. 모두가 말리는 불확실한 길이였음에도 ‘내 작품 하나를 만들고 싶다’라는 꿈 하나로 달려온 지난날들. 꿈을 위해 도전을 멈추지 않았던 그의 하루하루를 스크린에 담는다면 이 역시 영화와 같지 않을까. 그 한 장면을 기록했다.
글. 최선주 사진. 정우철 영상. 최의인

인생을 한 편의 영화처럼

독자들에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태근입니다. 호남대 문화산업경영학과에서 문화콘텐츠 및 영상 콘텐츠 수업을 했습니다. 지금은 서울디지털대 미디어영상학과에서 다큐멘터리를 가르치고, 한국다큐멘터리학회 회장을 맡아 활동 중입니다.

퇴임 후에도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요즘은 주로 어떤 일에 몰두하고 계시나요?

2021년에 찍은 극장용 다큐 영화 <새빨간 거짓말>이란 영화를 편집 중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은 새빨간 거짓말들의 진실을 밝히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거짓말이 통하고, 진실이 묻힌 경우가 있어왔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진실을 밝혀내는 작업을 통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관객들에게 묻는 영화입니다.

안태근 교수님

호남대학교 퇴임



영화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초등학교 때 신상옥 감독님의 <꿈>이란 영화를 보고 영화에 매력을 느꼈어요. 그때부터 감독을 꿈꾸었습니다. 극중 꿈에서 깨어나는 신영균의 법당 안 부감 솟은 지금도 뇌리에 선명하죠. “아! 저런 것이 영화구나!!” 감탄에 감탄을 하며 집으로 오는 내내 그 영화만을 생각했습니다.

영화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관객에게 가장 설득력을 갖고 있는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발명한 것 중에 영화만큼 재미난 예술은 없는 것 같아요. 영화를 오락적으로 즐기기도 하지만, 가르침을 받기도 하거든요. 영화는 영상을 통해 감독이 관객들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미학적으로 전달하며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예술입니다. 공감도나 대중성에 있어 영화를 능가할 예술 장르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수의 영화를 연출 및 기획하시고, 조감독, 감독 이력도 돋보입니다. 영화 현장에서 몸담았을 때 가장 좋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당대의 대감독인 정진우, 임권택 감독님과 함께 일하며 배우고 화제작들에서 연출을 경험한 것입니다. 신상옥 감독님도 개인적으로 만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죠. 2006년 4월 11일 감독님 타계 후 EBS <신상옥 추모 다큐멘터리-거장 신상옥 영화를 말하다>라는 90분 다큐멘터를 만들어 그의 영전에 바치기도 했습니다.

영화감독으로 일하면서 작업했던 작품 중에 가장 애착이 가는 작품은 무엇인가요?

데뷔작인 다큐멘터리 <한국의 춤 살풀이>입니다. 설악산 촬영을 마다 않고 수차례 오가며 촬영했거든요. 폭포 장면엔 필요한 폭포수 상황이 생각과 달라 세 번씩이나 갔던 일과 대청봉 정상에서 살풀이춤을 촬영한 것이 기억에 남아요. 1990년 금관상영화제에서 작품상과 감독상을 수상했던

<귀향>이란 영화는 추운 겨울에 인천항에서 멀리 나와 바다에 빠져가며 애써서 만들어 기억에 남습니다.

시나리오 작가, 영화감독, PD, 대학교수까지. 바쁘게 사시는데요, 각 직업의 매력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시나리오를 가르쳐주신 신봉승 작가님은 양손을 벌린 만큼의 원고지량을 습작하라고 하셨어요. 팔 반 정도의 분량을 습작하니 1986년에 극영화 시나리오 <사방지>가 영화사와 계약되더군요. 10여 년의 긴 시간이었는데, 탈고했을 때는 표현하기 힘든 환희를 느꼈죠.

감독은 완성 작업 때 음악과 영상이 어우러진 머릿속의 그림들을 현실에서 볼 수 있는데, 그 희열 역시 감격스럽습니다. 수상의 기쁨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영화를 오락적으로 즐기기도 하지만, 가르침을 받기도 하거든요.
영화는 영상을 통해 감독이 관객들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미학적으로 전달하며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예술입니다.

방송PD는 정해진 방송 시간에 맞추어 제작을 해야 한다는 부담이 큰 직업입니다. 그래도 집에서 시청을 하며 주변 분들의 “잘 보았다”라는 연락을 받을 때 보람을 느낍니다.

대학교수로 20년간 강단에 서고 있는데, 역시 훌륭한 제자의 활동 소식을 접하면 내일처럼 기쁩니다. 좋은 제자가 많이 배출되면 그것처럼 기쁜 일은 없지요.^^

가장 좋아하는 영화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인생 영화로 한 편만을 꼽는다면 한국 영화로는 저를 영화계로 인도한 신상옥 감독님의 영화 <꿈>입니다. 어린 시절이지만 저에게 놀라움을 준 영화였거든요. 신 감독님을 제 마음의 스승으로 모시게 되었죠. 해외 영화로는 홍콩의 장철, 일본의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님의 영화 중에서 꼽아야 할 것 같아요. 한 편을 고르라면 먼저 보았던 장철 감독의 <복수(보구/報仇)>를 꼽겠습니다. 당시 제16회 아시아영화제의 감독상 수상자인데 양강(陽剛/남자다움)의 미학과 비장미를 처절하게 표현해 충격을 받았거든요.

교수님 영화 인생에 영향을 준, 영화감독은 누구인가요? 평소 좋아하는 영화감독을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분들을 빼다면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입니다. 뛰어난 창의력으로 만드는 영화마다 관객을 설레게 하며, 흥행 기록을 경신했던 모범답안 같은 영화감독이기 때문입니다. 가족과 함께

본다면 <E.T>, 그리고 <주라기 공원> 1편이 꿈과 상상력을 충족시켜줄 수 있기에 좋을 듯합니다.

최근에 가장 재미있게 본 영화는 무엇인가요?

코로나19로 인해 극장을 덜 가게 되어 OTT 서비스를 통해 영화를 봅니다. 그중 2020년 정이삭(리 아이작 정) 감독, 스티븐 연, 한예리, 윤여정 출연의 <미나리>가 기억에 남아요. 그해 골든글로브 시상식과 미국 아카데미상에서 수상했죠.

영화는 계속되는 고난에 끊임없이 갈등을 거듭하는 주인공들의 삶을 적나라하고 디테일하게 담아냅니다. 다큐멘터리 같은 사실성이 관객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죠. 일부겠지만, 요즘 40대 이하의 사람들에게 영화에서 주인공들이 자초하며 겪는 현실은 이해하지 못할 스토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굳이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메리칸드림을 이룬 한국인의 저력은 영화의 메시지로 충분합니다.

한국 영화의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영화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한국 영화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최전성기를 맞았습니다. 그 이후 극장 개봉이 줄어들며 침체를 맞았지만, 회복 속도는 빠를 것입니다. 시나리오부터 제작에 이르기까지 영화인들의 수준은 정상급 경지에 올랐고 이제 하던 대로 최선을 다한다면, 한국 영화의 저력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운명처럼 영화계에 입문하게 되었는데,
당시 지도 교수님도 말리셨을 정도로 불확실한 미래에 도전한 셈이었죠.
가난한 조감독 생활보다도 내 작품을 만들지 못한 아쉬움이 감독 데뷔를 당겨주었습니다.
꿈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화감독 스티븐 스피버그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모험은 꿈꾸었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교수님께서 꿈꾸던 삶, 혹은 꿈꾸는 삶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영화감독으로서의 목표 설정이 빨랐지만 좌절도 많았어요. 쉽게 해낸 것은 아니고 꾸준히 노력을 멈추지 않았죠. 처음부터 수상작을 만들어 낸 것이 아니고 실패작도 많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스티븐 스피버그 감독의 <레이더스>를 보며 미국 유학을 꿈꾸었지만 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운명처럼 영화계에 입문하게 되었는데, 당시 지도 교수님도 말리셨을 정도로 불확실한 미래에 도전한 셈이었죠. 가난한 조감독 생활보다도 내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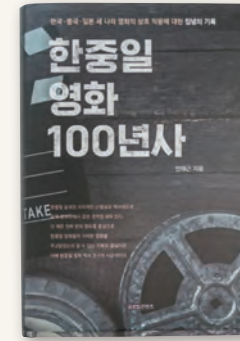
을 만들지 못한 아쉬움이 감독 데뷔를 당겨주었습니다. 꿈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화인을 꿈꾸거나 혹은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응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자들에게는 시나리오 작가나 영화감독을 권하진 않아요. 그만큼 험난한 과정을 각오해야 하는 것인데 영상 시대를 맞아 취미 활동으로 1인 미디어 영상 콘텐츠를 직접 만들어 보면 좋을 듯합니다. 고생할 각오가 확실하다면, 현장에 나가 직접 부딪쳐 보는 거죠. 늦더라도 혹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더라도 절실하다면, 한 번뿐인 인생인데 도전해 보세요. [tvN](#)

영화 인생을 완성시켜줄

안태근 교수님의 물건들



<한국영화 100년사> 시리즈 중
<한중일 영화 100년사>

꾸준히 영화 관련 서적 집필에도 몰두하고 있는 그. 그가 펴낸 몇 권의 책들 중, 의미 깊은 책을 꼽으라면 단연 <한국영화 100년사> 시리즈다. 2021년 출간된 책으로,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세종우수도서로 선정되기도 한 의미 있는 책. <한국영화 100년사> 시리즈 세 권 모두, 세종우수도서 학술상을 받아 더욱 뜻 깊다고 한다.



<명쾌한 영화 연기>

안태근 교수의 신간이다. 영화배우를 꿈꾸는 이들이 보면 좋을 지침서와 같은 책. 그의 영화 인생 40년이 담긴 결정체이기도 하다. 연기 방법론 및 연기자가 되기 이전에 알아두어야 할 영화제작론이 함께 소개되어 있다. 영화배우를 희망하는 미래의 영화인들이라면 한 번쯤 읽어 보기를 권한다.

‘친애하는 당신에게’의 주인공이 되어주시는 사학가족에게 초상화를 선물로 드립니다.



‘친애하는 당신에게’ 인터뷰 현장을 생생한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죽음과 삶의

아름다움

글 팽영일(동서대학교 퇴임)

얼마 전 추석 성묘를 다녀오며, ‘문득 우리가 죽은 후에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사진을 한 장 찍어 보았다.

그런데 너무나 건강하게 살던 선배의 갑작스러운 죽음 소식, 암을 극복하나 싶었던 고교 동기생의 죽음, 영국 및 영연방 시민들과 70년간 삶을 함께 했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죽음을 비롯하여 도처에 흩어져 있는 죽음의 소식을 들으며 또, 국회에서는 조력 존엄사법이 발의되어 있다는 소식 등을 보며, 죽음은 삶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고대 그리스의 이상주의 철학자 소크라테스와는 달리 현실 지향의 철학자로 알려진 크세노폰은 기원전 426년경 아테네에서 태어나 기원전 355년경 코린토스에서 죽었다. 그는 소크라테스의 제자로 스승 소크라테스의 인품과 산파술에 대한 기록 등을 전해주고 있기도 하지만, 현실을 중시한 실리주의 철학자로 알려져 있다.

그에 대한 일화 중에 크세노폰이 희생양을 제물로 한 제사를 집행하고 있을 때 가장 충직한 하인이 달려와 급한 소식을 알렸다. 크세노폰이 아끼고 사랑하던 큰아들 폴로스가 전사하였다는 것이다. 그의 아들 폴로스는 너무나 용맹하고 훌륭한 장수였기에 그가 전장에서 죽으리라는 소식은 그 누구도 믿지 않을 정도였다.

크세노폰은 제사를 진행하고 있던 중 아들의 사망 소식을 듣고 잠깐 제례를 멈추고, 어떻게 죽었는지 묻고는 선봉에서 서서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하였다는 말을 듣고 나서 다시 진행 중이던 제사를 그대로 계속하였다. 이를 본 그의 가장 충직한 하인은 가장 아끼고 애지중지하던 아들이 죽었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덤덤할 수 있는지 도대체 주인의 태도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는 주인에게 이유를 물어보고 싶었으나 엄숙한 자리에서 함부로 물어볼 수도 없었다. 그렇다고 아무런 일도 없는 것처럼 있을 수도 없었다. 마침내 제사가 끝나고 희생 제물을 나누어주고 난 뒤 널리 펼쳐진 평원을 멍하니 바라

보고 있던 크세노폰에게 다가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아들을 잃었는데 어떻게 눈물을 참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이 말을 들은 크세노폰은 담담하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나는 내 아들 “폴로스를 낳았을 때부터 그 아이가 언젠가 죽을 것을 알고 있었네.”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언젠가는 죽을 운명을 갖고 살아간다. 인간의 삶은 죽음과 떼려야 뗄 수 없는 한 몸인 것이다. 그런데 죽음을 거부하거나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죽음을 입에 올리기를 싫어하여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죽음에 대해 말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죽음을 연구하는 죽음 학자들은 죽음은 곧 삶의 종말이 아니라 아름다운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곧 삶의 완성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

예전에는 일상생활 속에서 상례를 보거나 집에서 숨을 거두게 되니 사람의 죽음을 보고 느끼며, 직접 죽음을 접촉하며 사는 기회가 있었으나, 요즘은 요양병원이나 병원의 중환자실, 장례식장에서나 목도할 수 있는 현상으로 변화됐다.

죽음을 접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느끼고 배우면서 지냈지만, 현대인들은 의료시설에서 보호자와 격리된 채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되었다.

이러한 면에서 죽음은 자기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할 때, 우리들은 스스로 미리 자신의 죽음에 대처해야 하게 되었다.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방정맞거나 재수가 없는 일로 꺼려하거나 죽음 이후의 세계는 사후로 남겨두고 삶만 이야기하자는 태도에서 벗어나, 좀 더 자연스럽게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수용하는 자세가 요청된다. [iti](#)

애뜻한 마음

글 서복현(광주대학교 퇴임)

님 올까 소라 귀는 사립문을 흔들고
베갯모 봉황은 날개가 꺾이네

손끝이 떨리는 수틀을 내려놓고
까치발 곤두세워 눈을 돌리니

서둘러 간 님의 향기 아직은 여기 있어
놀란 박새 하나 후다닥 날아가니


그만

꽃을 밟고 말았네 

엄마의 가을

글 강신익(세종유치원 퇴임)

내 어린 시절 가을
어둠에 새벽녘 엄마는 늘
내가 한기를 느낄 때쯤
밤새 뒤척이다 곤히 잠든
나를 살폈습니다
속옷을 가슴까지 걷어올려
배를 내어 놓고 자면
그 옷 다시 끌어내려주시고
가랑이 사이에 둘둘 말아
끼어있는 흙청은 다시 펴서
목까지 덮어줍니다

희미해 보인 잠든
내 이마를 쓸어 올려주며
살포시 입맞춤하고
돌아서는 엄마 입가에
고운 미소가 피어날 때쯤
웅크리고 자던 나는
엄마의 손길을 느낍니다
덥다고 활짝 열어 놓았던
방문을 닫아 주시며 돌아서는
엄마의 따뜻한 그 손길에서
늘 가을은 시작되었습니다 

바다의 우유가 우리집 밥상에!



굴전



우유처럼 영양가가 많아 '바다의 우유'라고 불리기도 하는 굴.
 특히 굴에는 필수 아미노산, 칼슘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살이 통통하게 오르고 영양가도 듬뿍인 이맘때에 먹으면 어느 보양식 부럽지 않다.
 깨끗하게 씻어 손질해 초장에 찍어 먹어도 좋지만, 생굴이 조금은 부담스럽다면 굴전은 어떨까.
 겉은 바삭바삭, 속은 촉촉~! 환상적인 식감에 젓가락질을 멈추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글. 최선주 사진. 정우철 요리. 박정윤(노하우스 스튜디오 knowhow's studio)



재료
준비


굴 15개, 밀가루 1/2컵, 계란 2개, 실파 조금,
 미나리 조금, 홍고추 1개, 굵은소금
 양념장 - 간장 2T, 물 1T, 식초 1t, 실파 1t



만드는
편

1. 굵은 굵은소금을 넣고 주물러 흐르는 물에 씻어 준비한다.
 실파, 미나리는 쫄쫄 썰고, 홍고추는 잘게 다진다.
 2. 계란을 풀고 1에서 준비해둔 실파, 미나리, 홍고추를 넣어 섞고, 굴에 밀가루와 계란물을 입힌다.



3.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르고 노릇하게 굵고, 양념장 재료를 섞어 곁들여 낸다. 



Tip

- 굴은 살이 통통하고 광택이 나며, 눌렀을 때 탄력이 있고 살 가장자리에 검은 테가 뚜렷한 것이 싱싱합니다.
- 굴에 세균의 번식을 막아주는 레몬을 뿌려주면,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레몬의 구연산은 굴의 철분 흡수를 도와줍니다.
- 굴전 요리 중, 물이 생기면 뜨거운 물로 한번 데쳐주세요.

지구를 위한 생각을

모
아



여행자들을 맞이하는 전주의 한 숙소.
비누를 이용해 씻고, 고체 치약과 대나무 칫솔로 양치를 하고,
소창 수건으로 손발을 닦아야 한다.
플라스틱 병에 담긴 샴푸로 머리를 감고,
거품이 잘 나는 치약으로 양치를 하던 우리에게는 조금 낯선 것도 사실.
하지만 이곳은 용기를 내 우리 생활에 익숙한 것들부터
친환경 제품들을 사용해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던진다.
제로웨이스트 숙소, 모악산의 아침의 풍경이다.

글. 최선주 사진. 정우철

여행자를 위한 마음을

모
아

모악산의 아침



모악산의 아침을 소개해 주세요.

모악산의 아침은 지속 가능한 여행을 돕는 제로웨이스트 숙소이자 북스테이, 다양한 프로젝트를 만드는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거실의 커다란 통창으로 한눈에 보이는 모악산 전경과 대나무 숲이 특히 매력적이에요.

‘모악산의 아침’이라고 이름 지은 이유가 궁금해요.

원래는 어머니께서 10년 넘게 사용하신 약학 블로그 이름이었어요. 이른 아침 큰 창에 보이는 모악산이 좋아서 그렇게 지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름을 따서 자연스럽게 공간의 이름도 모악산의 아침이 되었습니다.

모악산의 아침
공간 중에 큰 창 너머로
보이는 모악산과
대나무 숲을 바라볼 수 있는
거실을 좋아해요.
흔들의자에 앉아
멍 때리며 음악을 들으면,
바쁘고 빠르게
움직이는 세상에서
잠시 멈춰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숙소에 제로웨이스트를 접목시켜 운영하게 되었나요?

처음 숙소를 시작했을 때, 배출되는 많은 양의 쓰레기에 놀라 환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방문객들의 편의를 존중하며 쓰레기도 줄이고, 기후 위기 메시지를 공간 속에 잘 녹일 수 있을지 고민도 했죠. 숙소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공간에서 친환경 용품을 체험하며 일상 속 실천도 이끌고, 제로웨이스트 숙소 용어를 만들어 사용하게 되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적용하는 중입니다.

모악산의 아침에서 가장 ‘제로웨이스트 라이프’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욕실이요. 잘라진 비누를 사용할 수 있고, 플라스틱 제품을 볼 수 없거든요. 소창 수건과 대나무 화장지, 고체 치약도 사용해 볼 수 있고요. 또, 현관에는 숙소에서 체험한 용품을 소량 구매할 수 있어요. 바로 일상 속 실천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구비해왔고, 지역별 제로웨이스트 가게를 소개하는 지도, 기후 위기 관련된 포스터와 책을 비치해두었습니다.



모악산의 아침을 찾는 고객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며, 어떻게 찾아오시나요?

제로웨이스트 숙소이다 보니, 어떤 분들은 제로웨이스트에 동의한 분만 오신다고 생각하는데, 여느 숙소와 다르지 않아요. 연령층도 다양하고 여행, 쉬, 워크숍 모임 등의 목적으로 찾아오십니다. 사실 제로웨이스트 숙소는 운영자가 실천하는 것들이 훨씬 크고, 방문객들에게 일상 속 쓰레기를 줄이고, 친환경적인 방법을 경험하고 제안하는 곳이에요. 불편하지 않고, 오히려 자연 속에 있어 쉬를 청하고 영감을 얻어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잘라진 비누와 고체 치약을 처음 사용해 보시고, 집에 가서 구매했다는 분들도 많고요.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은 소창 수건과 천연 수세미를 보고 옛날에는 다 이렇게 사용했다며 응원도 많이 남겨주세요. 공간이 좋아서 아껴주시고, 취지를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져서 운영자로서 정말 뿌듯합니다.

계획하고 있거나, 도전해 보고 싶은 환경 관련 활동을 말씀해주세요.

올해 가을부터 커뮤니티 공간 '지향집'과 비건식료품점&환경 책방 '초이룩'을 운영하게 됐어요. 이 공간에서는 자유롭게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돈보다는 가치에 중심을 둘 텐데요. 환경 워크숍도 많이 열고 비건 음식을 함께 만들어 먹으며, 자연스럽게 비거니즘을 알리고 싶어요. 동네 사람들과 함께 반찬을 나누고, 필요 없어진 물건을 서로 공유하는 재미있고 신나는 공간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아이디어가 있고, 궁금하신 분들 놀러 오세요.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는 가장 쉬운 방법을 독자들에게 소개해주세요!

기존에 있는 물건을 충분히 사용하는 것이에요. 새로 물건을 사는 것보다는 이미 있는 물건을 쓰임이 다할 때까지 사용하고, 새로운 용도로 물품을 재사용하는 거죠. 욕실 플라스틱 샴푸를 다 사용하면, 샴푸바를 사용하는 것도 좋아요! 어떤 물건을 살 때, 알맹이만 사는 게 아니고 쓰레기도 함께 구매하는 거잖아요. 이 사실을 인지하고 유심히 주변을 둘러보면 방법은 많습니다.



앞으로 모악산의 아침을 운영하면서 이루고 싶은 목표는 무엇인가요?

모악산의 아침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싶어요. 지속 가능한 축제, 프로그램, 결혼식 등을 열어보고 싶고, 지향하는 가치가 비슷한 곳에 제공하는, 공간 기부도 꾸준히 하고 싶어요. 모악산의 아침을 방문하셨던 분들이 다시 오셔서 추억을 곱씹을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오래오래 운영하겠습니다! 🍷



모악산의 아침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인2길 25-48
인스타그램 @travel_moa

모악산의 아침 운영자 '모아'가 하는



모아로와

요가, 명상, 채식, 기록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게스트하우스 형식처럼 방 1개씩만 빌려주는 '모아로와' 프로그램. 운영자 모아가 좋아하는 가치들도 함께 공유하고, 혼자 여행하는 여행자들에게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시작했다.

블모시장

'불편한 모험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드는 장'이라는 뜻이다. 팀원들과 함께 매년 두세 번 정도 기후 위기를 알리고, 쓰레기 없이 농산물과 비건음식을 구매할 수 있는 플리마켓, 친환경 물품 구매, 업사이클링 체험을 할 수 있고 공연도 열리는 재밌는 장터다. 판매자는 무포장 물품을 판매하고, 구매자는 용기에 물품을 담은 경험을 통해, 제로웨이스트 삶이 일상 속까지 이어지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제로블모지

전주, 전북에서 비건 옵션이 가능한 식당과 카페를 모아 카카오톡 비건 지도를 만들기도 하고, 비건 지도 큐알코드를 출력해 곳곳에 비치하기도 한다. 비건과 환경 채팅방을 운영하고 비건 워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기후 위기와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보건·의료 관련 직업

라이징 스타!

변화하는 시대의 급물살에 쓸려 사라지는 직업이 속속들이 생겨나고 있다. 반면 그 빈자리를 채우며 관심을 받고 있는 직업도 있다. 이중, 보건·의료직은 미래에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직업 중 하나. 흔히들 생각하는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이 아닌 병원 밖 다양한 곳에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다고 한다. 그 세계로 들어가 보자.

글: 편집실

우리 아기에게 건강한 모유를

모유영양 분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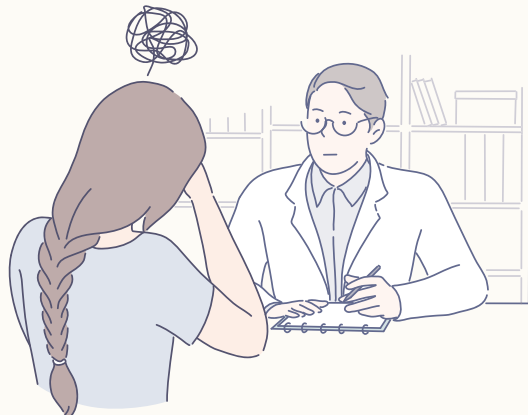


아기에게 가장 이상적인 영양소이며, 유아식의 기본인 모유. 아기를 위한 '수라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모유를 연구, 개발하는 사람을 '모유영양 분석가'라고 한다. 이들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 건강한 분유와 유아식을 만들 수 있도록 돕고, 산후 조리원 등에서 수집된 모유와 설문지 등을 통해 '모유 영양 분석 서비스'를 운영함과 동시에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는 식단까지 제공하는 일을 한다. 모유영양분석가가 되려면 영양사, 임상 영양사, 식품기사 등의 자격증이 필요하다. 국내 분유시장은 해마다 축소되고 있는 반면 모유 시장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어 이 직업의 미래도 상승세다.

건강한 게임 문화를 만들어 가요

인터넷게임중독 치료전문가

인터넷게임에 중독된 사람을 대상으로 중독 상태를 진단, 적합한 치료방법을 제시하고 치료하는 사람을 '인터넷게임중독치료전문가'라고 한다. 이들은 환자에게 '6단계' 치료를 시행하는데, 먼저 자신이 중독인 것을 인정하고 왜 끊어야 하는지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게 한다. 그 후 적성검사 및 심리검사와 개인별 맞춤 프로그램을 통해 놀이, 명상, 약물 등 다양한 치료를 실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상담을 진행하는 것으로 치료를 마무리한다. 현재 인터넷게임 중독 위험군이 많고, 그 연령도 낮아지고 있는 추세여서 인터넷게임중독치료전문가는 미래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직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모발~ 모발~ 더이상 불가능은 없다

모낭 분리사



풍성하고 건강한 머리카락은, 노화나 유전 및 스트레스 등의 후천적 요인으로 탈모가 진행된 이들에게는 너무나도 간절하다. 그 고민을 해결해주기 위해 '모낭세포'를 이식하는 '모발이식'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의사를 보조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모낭분리사'라고 한다. 여러 명의 모낭분리사가 의사에게 전달받은 모낭 덩어리의 생착률을 높이기 위해 빠르고 정확하게 분리한다. 그리고 식모기에 장착하여 의사가 빠르게 이식할 수 있도록 돕는다. 모낭분리는 정밀한 작업과 장시간의 노동을 요구하므로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며 다른 분야에 비해 체력적 부담이 크지 않아 여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하하호호~ 웃으면 복이 와요

웃음 치료사

마음을 건강하고 즐겁게 해 몸이 건강해지도록 도와주는 사람을 '웃음치료사'라고 한다. 이들은 정기 프로그램 또는 특강을 통해 정서적 불안과 대인관계의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웃음으로 자신감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 웃음에 대한 기본적인 임상실험 결과나 효능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춰야 하고, 정확한 뜻 전달을 위한 화술과 상황 대처능력에 따른 순발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 표현력과 연기력, 마술이나 악기를 다룰 수 있으면 좀 더 유리하다. 직업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이며 요양원이나 복지관, 특수학교, 의료기관 등에서 활동할 수 있다. [tv](#)



달빛 아래 피운 사랑

숨이 막힐 지경이구나



장돌뱅이의
애뜻한 사랑이
진한 그리움으로
남아 있는 마음.
봉평은 하늘에 점점이 뜬
구름마저 메밀꽃을 닮았다.
가을바람이
선선하게 불던 날,
이효석(1907~1942)의
고향이자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의
배경인 봉평을 찾았다.
떠돌이 장돌뱅이의
길 위에 인생이 있고,
생의 계절을 함께
지나온 늙은 나귀가 있고,
바람처럼 날아간
사랑 한 토막이 있다.
글. 윤진아 사진. 정우철



모던보이
이효석

예술촌 안으로 들어서면 장돌뱅이의 붓짐을 등에 진 나귀가 지그시 고개를 내민다. 소설 <메밀꽃 필 무렵>에서 나귀는 허생원의 분신으로 등장한다. 같은 달빛에 젖으며 같이 늙어갔던 나귀는 바로 허생원 자신의 모습이었다.

달빛언덕에는 집 두 채가 있다. ‘이효석 생가’는 작가가 나고 자란 초가집을, ‘푸른집’은 만년에 살던 평양 주택을 재현했다. 꿈꾸는 달 카페에서는 생전 이효석이 즐겨 마셨다는 모카커피를 판다. 향토문학의 대표주자로 불리지만, 사실 이효석은 서양 영화를 즐겨보고 축음기로 쇼팽의 음악을 들던 모더니스트였다. 아침마다 우유를 마셨고, 토스트에 버터를 발라 커피와 함께 먹었다. 푸른집 거실에 놓인 축음기를 보니, 엄혹한 시대를 살며 한없이 움츠러들었을 젊은 영혼의 고뇌가 읽혀 안쓰럽게 느껴진다.

서구문학에 대한 동경이 커갈수록 이효석의 문학은 토속을 파고든 듯하다. 단편소설 60여 편, 중편 3편, 장편 외에도 시와 희곡, 수필을 80여 편이나 남기고 간 이효석의 감성은 매년 가을 메밀꽃 향기와 함께 새로 피어난다. 2002년 문을 연 이효석문학관은 올해 꼭 20주년을 맞았다. 문학정원에는 책상에 앉은 이효석 동상이 지금도 작품을 집필 중이다.

“반평생을 같이 지내온 짐승이었다. 같은 주막에서 잠자고, 같은 달빛에 젖으면서 장에서 장으로 걸어다니는 동안에 이십 년의 세월이 사람과 짐승을 함께 늙게 하였다. 가스러진 목뒤털은 주인의 머리털과도 같이 바스러지고, 개진개진 젖은 눈은 주인의 눈과 같이 눈굽을 흘렸다.”

- <메밀꽃 필 무렵> 중에서

가을이면 봉평의 산허리는 메밀꽃으로 덮인다. 올해는 긴 장마 탓에 작황이 부진하긴 해도 은은한 메밀향이 지천을 휘감으며 애뜻한 사랑 이야기를 속삭인다.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에 자리한 이효석문화예술촌은 이효석문학관과 효석달빛언덕으로 이뤄져 있다. 문학관은 작가의 문학세계에, 달빛언덕은 체험에 초점을 맞췄다. 메밀밭을 내려다보기 좋은 달빛나귀전망대와 이따금 공연이 열리는 나귀광장도 있다.



한국 단편문학의 백미
<메밀꽃 필 무렵>

한국을 대표하는 단편소설 작가 이효석은 1928년 빈민의 삶을 다룬 <도시와 유령>을 발표하면서 등단했다.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유학 간 소년은 서른여섯 젊은 나이에 숨을 거둘 때까지 타향살이를 했다. 어렸을 때 백 리나 떨어진 평창읍내 하숙집에서 보통학교를 다녔는데, 봉평 집까지 먼 길을 걸어 다녀오던 경험이 주위 풍경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경성제국대학(현 서울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한 이효석은 결혼하고도 취직이 되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은사의 주선으로 조선총독부 경무국 검열계에 들어갔으나 문단 동료들로부터 변절자로 지탄받자 열흘 만에 사직서를 내고 도망치듯 서울을 떠났다. 2년 가까이 절필했던 이효석은 모더니즘 문학단체 '구인회'에 참여하면서 한때 열렬하게 추종하던 이데올로기를 멀리하고 자연과 사랑을 소재로 한 순수문학의 세계로 접어들었다. 1936년 발표한 <메밀꽃 필 무렵>은 사랑이라는 보편적인 감정이 토착적인 자연미와 유려하게 어우러진 작품으로, 한국 서정문학의 새 경지를 열었다는 평을 받는다. 생애 단 한 번이었던 짧은 사랑의 기억을 평생 담고 살아가는 장돌뱅이의 이야기가 애잔하게 마음을 적신다.



“봉평은
지금이나 그제나 마찬가지로.
보이는 곳마다
메밀밭이어서
개울가가 어디 없이
하얀 꽃이야.
돌밭에 벗어도 좋을 것을,
달이 너무나 밝은 까닭에
옷을 벗으려 물방앗간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이상한 일도 많지.
거기서 난데없는 성서방네
처녀와 마주쳤단 말이네.
봉평서야 제일가는
일색이었지.”

- <메밀꽃 필 무렵> 중에서



은은한 메밀향 속
피어나는 서정

“달밤이었으나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지금 생각해도 도무지 알 수 없어.” 허생원은 평생을 두고 지겹도록 젊은 날의 추억을 회상했다. 늙은 장돌뱅이가 유일하게 마음 뉘일 구석은 달빛 아래 흐드러진 메밀꽃밭에서 피어난 사랑의 기억이었을 터이다. 낮에는 볼품없는 장돌뱅이지만, 달이 뜨면 그 밤의 추억이 되살아나 행복해진다.

“달은 지금 긴 산허리에 걸려 있다.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콩 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릿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 <메밀꽃 필 무렵> 중에서

한순간의 빛나는 추억만 있어도 살아갈 수 있다. 아득하게 피어오르는 기억에 마음이 몽글몽글해질 땐, 이효석이 ‘숨이 막힐 지경’이라고 칭송했던 달빛 아래 메밀밭에 기대보자. 이효석문화예술촌에선 메밀밭이 어디에 있는지 길을 물을 필요도 없다. 눈을 돌리는 곳이 다 메밀밭이기 때문이다. 젊은 소설가와 늙은 장돌뱅이가 사는 내내 그리워했던 메밀꽃은 매년 새로 피어난다. 📺

이효석문학관

주소 강원 평창군 봉평면 효석문학길 73-25

휴관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1월 1일, 설날, 추석 당일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고급시계든 가격 상승의 기본 조건은 거래량이다.
 쉽게 말해 그 물건을 갖고 싶어 많은 사람이 몰리면 몰릴수록 가격은 올라가는 법이다.
 전국 집값의 바로미터로 평가받는 서울 아파트 가격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간 거래량 추이를 보면 부동산 활황기에는 한 달에 1만 건~1만 2천 건 정도의 매매거래가 이뤄졌다.
 나름 시장이 관찮다고 할 때는 8천 건 정도, 보통 6천 건 정도는 '기본'으로 사고 팔린다. 그런데 지금은?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주택) 거래량과 가격 추이, 그리고 집값 전망에 대해 이야기한다.

글: 정철진(경제칼럼니스트, 진투자컨설팅 대표)

부동산 거래량과 가격추이

서울 아파트 매매
 월 650여 건

금리인상은 언제 멈출까



**7월 서울 아파트 매매 643건
 역대 최저 '끝 아니다'**

모든 자산시장에는 호황이 있으면 당연히 불황도 찾아 온다. 국내 주택시장도 마찬가지다. 집값 하락기는 반드시 존재하는 법이다. 그리고 현시점이 바로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뭔가 좀 수상하다. 바로 거래 폭감, 거래 절벽, 아니 '거래 실종'이 너무 심하다.

과거 '주택시장이 정말 최악이다'라고 할 때도 서울 아파트는 3천 건 정도 매매가 이뤄졌었다. 하지만, 현재 거래량 패턴은 완전히 붕괴됐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643건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8월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655건으로 7월보다 10여건 증가했을 뿐이다(국토교통부 집계는 907건). 정확한 9월 매매 통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추석 연휴가 있었던 걸 감안하면 500건 대까지 추락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08년 말 세계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도 월 3천 건 정도 매매가 이뤄졌고, '최악의 부동산 시기'라고 불리는 지난 2010년 5월에도 2,131건을 기록했다. 즉, 현재까지 월 2천 건 정도가 가장 적은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였던 것. 하지만 지금 주택시장은 2010년만큼 가격 하락이 심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벌써 월 천 건이 붕괴됐다. 150만 채가 넘는 서울 아파트 물량 중에 한 달에 매매 거래가 500~600건 정도라니! 그럼에도 주택매매는 크게 늘 어날 것 같지 않다. 역시 '금리' 때문이다.

**금리인상은 과연 언제까지?
 주담대 8% 각오해야**

왜 매수세가 나타나지 않는 걸까. 이유는 명확하다. 집을 사려는 사람들은 현재 이뤄지고 있는 금리 인상의 끝이 어느 정도인가를 확인하고 싶기 때문이다. 주택, 아니 부동산이라는 거래는 대부분 '대출'을 받아 이뤄진다. 따라서 대출금리는 매매에 있어 중요한 고려대상이 된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생겼다. 지금 진행되는 금리 인상이 연말에 멈출지, 아니면 내년 1분기에 끝날지, 또 아니면 내년 연말까지 이어질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정확히는 '과연 어느 정도 금리 수준에서 물가가 잡힐까?'인데, 이걸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다. 게다가 금리 인상폭도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9월 말 기준 2.5%)를 3%까지 올릴지, 아니면 3.5%, 혹은 4%까지 올려야 물가가 잡힐지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런데, 만약 기준금리가 3%를 넘는다면 시중 주택담보대출금리의 상단선은 연 7%까지 올라가고, 여기서 더 올리면 이제 8%대 대출금리를 보게 될 것이다. 자, 이때 집을 사려는 사람 입장에선 2가지를 확인하려 할 것이다. 첫째는 앞서 말한 것처럼 금리 인상이 언제 멈추는가이고, 둘째는 그때 금리 수준은 얼마인가이다. 이 2가지 조건이 모두 고려대상인데, 금리 인상이 확실히 멈추어야 하고, 그때 금리는 기본적으로 7% 밑이어야 한다. 금리인상이 멈췄는데, 이때 대출금리가 8%대라면 매수는 더 기다릴 것이고 거래량은 계속 폭감 상태일 것이며, 당연히 집값도 약세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

**집값 2019년, 2017년,
 아니면 2015년?**

그렇다면 집값은 어떤 패턴을 보이게 될까. 현재 수준을 보면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말 가격대로 내려와 있다. 강남 지역의 경우, 국민평형(30평형) 대가 20억 원이 깨진 19억 원대에 거래되고, 강북 인기지역에선 15억 원 선이다. 서울 외곽과 수도권에서는 30평형대 아파트 가격이 10억 원 선도 깨져있다. 따라서 이다음부터가 중요하다. 만약 여기서 금리 인상이 멈춰준다면, 거래는 살아날 것이고, 현재 가격이 지지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금리 인상이 지속되고 시중금리가 계속 오르면 다음 가격대는 지난 2017년 가격대인 강남 30평형 13~15억 원대, 강북 인기지역 10~12억 원, 수도권 6~7억 원이 지지선이 된다. 하지만 내년(2023년) 내내 금리가 계속 오른다면 집값은 더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정리해 보자. 주택 매매 거래는 언제 되살아날까, 집값은 얼마나 더 떨어질까, 딱 하나의 기준인 '금리 인상은 언제 멈출까'를 확인하면 될 것 같다. 📰

추위를 잘 타고, 땀이 잘 나지 않는다. 게다가 피부는 건조하고 창백하며 누렇게 된다. 여기까지 들으면 건조해진 날씨 탓에 생기는 계절성 질환인가 싶지만, 사실 이 증상은 갑상선기능저하증의 증상들이다. 다른 질환에서 나타나는 증상과 유사해 모르고 넘길 수도 있으니 이번 기회에 점검해 보기를 바란다.

글. 편집실

이유 모를 피로가 계속된다면?

갑상선기능저하증을 의심해 봐야



갑상선기능저하증 체크리스트



갑상선이란?

몸속에 위치한 나비 모양의 기관으로 발육·소화 등 각종 대사작용을 담당하는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몸속 세포의 대사작용을 촉진하고 체온이나 심장 박동에 영향을 끼칩니다.

- 1 최근 피부가 거칠고 푸석푸석해졌다.
- 2 숨 쉴 때 맥박이 분당 60회 이하의 속도로 된다.
- 3 눈썹이 빠진다.
- 4 최근 들어 번비가 심해졌다.
- 5 이유 없이 숨 쉬는 게 힘들다.
- 6 얼굴과 팔다리가 자주 붓는다.
- 7 요즘 말과 동작이 느려졌다는 소리를 자주 듣는다.
- 8 허가 두껍고 커진 느낌이 든다.
- 9 목소리가 쉬었다.
- 10 입맛은 없는데 체중은 자꾸 늘어난다.

5개 이하

갑상선기능저하증보다는 다른 질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6~8개

갑상선기능저하증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병원 상담을 권장합니다.

9~10개

갑상선기능저하증입니다. 내원하셔서 피검사, 초음파 검사를 받아보세요.

갑상선기능저하증에 좋은 음식



생선 생선은 뛰어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단, 생선을 고를 때 수은 함량은 없는지 살펴보고 골라야 합니다. 수은은 갑상선 기능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콩 콩은 갑상선이 호르몬을 만드는 데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며 갑상선기능저하증에 좋은 음식입니다. 또한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에게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 되어줍니다.



요오드 갑상선기능저하증 일 때 요오드가 풍부한 음식을 먹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미역, 다시마, 해산물, 요구르트, 계란, 우유 등이 있는데요. 음식으로 요오드를 섭취하기 어렵다면 영양제를 통해 보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2022년 연금소득세 연말정산 안내

1 연금소득 연말정산이란?

2022년 총 연금급여액에 대하여 납부해야 할 세액을 산정 후, 이미 납부한 세액과 결정된 세액을 비교하여 추가 징수 또는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2 연말정산 대상자 및 정산시기

- 2002.1.1 이후 퇴직한 연금수급자
- 2023년 1월 연금 지급시 정산됨

※ 유족연금 및 장애연금 수급자는 제외 대상임

3 2022년 연금소득의 연말정산 방법

$$\text{과세대상 연금소득} = \text{연금 수령액(연간)} \times (\text{2002년 이후 재직월수} / \text{총 재직월수})$$

$$\text{연금소득금액} = \text{과세대상 연금소득} - \text{연금소득공제액}$$

$$\text{산출세액} = (\text{연금소득금액} - \text{인적공제}) \times \text{세율}$$

$$\text{결정세액} = \text{산출세액} - \text{세액공제}$$

$$\text{정산세액} = \text{결정세액} - \text{기납부세액}$$

가. 연금소득공제 (소득세법 제47조의2)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당해연도에 받은 과세대상연금소득금액에서 다음 표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합니다. (공제한도 900만 원)

과세대상 연금액	공제액
350만 원 이하	전액
350만 원 초과 700만 원 이하	350만 원+3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700만 원 초과 1,400만 원 이하	490만 원+7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1,400만 원 초과	630만 원+1,4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

나. 인적공제 (소득세법 제50조, 51조)

①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1인당 150만 원

[부양가족]

- 배우자 및 부양가족공제는 다른 소득자(근로소득자 등)와 중복하여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 배우자 및 부양가족(장애인의 경우 연령의 제한은 없음)의 연간 소득금액(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구분	가족요건	생계요건	연령요건	소득금액요건
본인공제	본인	없음	없음	없음
배우자공제	배우자	주민등록표상 동거여부 불문	없음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
	직계비속 입양자		만 20세 이하	
부양가족 공제	직계존속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 (해외 거주 직계존속은 주거형편상 별거에 해당하지 않음)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기초수급자		없음	
	위탁아동 (6개월 이상 양육)		만 18세 미만	

◇ 인적공제(부양가족)신고 주의 사항

- * 2022년에 사망하거나 장애에서 치유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은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 2021년 이전에 사망하거나 장애에서 치유된 경우는 부양가족 취소 신고를 하여야 함.
- * 2022.12.31. 현재 배우자인 경우 인적공제 가능(이혼한 배우자 제외)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에 신청인 성명과 서명기재
 - 본인의 정보에 한하여 조회가 가능하므로 부양가족이 주민등록등본상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제출
 - *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제출
 - * 위탁아동인 경우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제출



기타 내용은 <사학연금> 웹진을 통해 확인하세요!

월간 <사학연금> 웹진
웹진으로 가면
참여가 더 쉬워요!

PC나 스마트폰에 아래 주소를 넣으면
'사학연금 웹진'으로 연결됩니다.
http://www.tpwebzine.com



인터넷 검색창에
사학연금 웹진 을
검색해보세요.

웹진에서만 즐기는 이벤트!

- 1. 다른 그림 찾기
사진을 보고 다른 그림 찾기에 도전해보세요!
- 2. 빈칸 채우기
알쏭달쏭 빈칸 퀴즈에 참여해주세요!



참여방법 웹진 접속 후 메인 하단 EVENT 코너 클릭!
참여기한 2022년 11월 7일 마감

월간 <사학연금> 독자 참여 코너

11월 7일
마감

코너명	코너 소개	필수 사항	독자 선물
친애하는 당신에게 (인터뷰 코너)	월별 테마에 맞는 사학가족을 만나 인터뷰합니다. 12월호 테마 - '하워드 스탠' 커피를 좋아하거나 커피 관련 취미가 있는 사학가족	웹진 또는 메일 응모	초상화
도전 백주부	시기에 맞는 요리 및 레시피를 소개합니다.	11월호 '굴전' 도전 후기 사진 웹진 또는 메일 응모	밀키트
사학 백일장	사학가족이 직접 쓴 시 또는 수필을 소개합니다. *내용과 주제 자유	한글 및 워드 파일 형태로 A4용지 1매 내(12포인트 기준) 웹진 또는 메일 응모	문화상품권
공단 바라기 & 독자 의견	공단에 바라는 점과 월간 <사학연금>의 칼럼을 읽고 감상평을 보내주세요.	웹진 또는 메일 응모	문화상품권
당신에게 꽃 *웹진 단독	고마운 사람에게 짧은 편지와 함께 꽃을 선물하는 코너	짧은 편지와 선물하고 싶은 이유 작성 후 웹진 응모	꽃다발
웹진 이벤트	1. 다른 그림 찾기 2. 빈칸 채우기	웹진 참여	스타벅스 커피 기프트콘

응모
투고방법

이메일 magazine@tp.or.kr 우편 전남 나주시 문화로 245 사학연금 홍보실
*독자 선물 제공에 필요한 성함, 생년월일, 연락처를 꼭 적어주세요.
*선물 발송일: 해당 월(기고 글이 게재된 달) <사학연금> 발행 후 15일 이내로 발송됩니다.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일상생활법률 상담요청에 대하여 무료 상담 제공

- 법적 절차, 판례, 법률 해석 안내 등 '상담서비스'로 한정
(소장, 계약서, 답변서 작성 등 상담 외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하지 않음)
- 변호사 윤리를 위반하지 않는 내용에 한하여 상담 진행

채권/채무	부동산·주택임대차	가사·상속
교통(교통사고 등)	근로	행정·조세
형사	연금 *일부변호사 상담 제외	기타

서울	법무법인 에스엔 (최민영 변호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22 도원빌딩 9층 ☎ 02-565-9881
경인/강원	법무법인 효원 (최중섭 변호사)	경기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 540 법조빌딩 2층 ☎ 031-211-1234
충청	김형배 법률사무소	대전광역시 서구 문예로 73 ☎ 042-482-1933
광주/호남/제주	변호사 김정현 법률사무소	광주광역시 동구 밤실로 19, 3층 ☎ 062-222-0550
대구/경북	김섭 법률사무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58-6 ☎ 053-755-7510
부산/울산/경남	법무법인 국제 (강영수 변호사)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28 부산법조타운 빌딩 7, 2층, 8층 ☎ 051-242-9908